

글쓰기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요령

국영문 막론, 하나만 마스터하면 된다.

두괄식 글쓰기

- ▶ 문단의 첫 문장 = 그 문단을 요약하는 문장
 - ▶ 첫 문장이 문단에서 말하려는 핵심(topic sentence)이어야
 - ▶ 첫 문장은 짧게, 한 줄을 넘지 말아야
- ▶ 그런 문장을 못찾겠다? 문단을 다시 써라
- ▶ 너무 많다? 문단을 쪼개라
- ▶ 반복된다? 문단을 합하라

어긋난 예

“휴대용 기기의 발전과 무선 네트워크 카드, 외장형 저장장치 등 다양한 주변장치들이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장치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전체 시스템의 전력소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소모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전지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스마트 배터리 이외에 각 장치 단위로 소모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를 추가하는 접근방법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괄식? 요점이 뭐지?

어긋난 예

“휴대용 기기의 발전과 무선 네트워크 카드, 외장형 저장장치 등 다양한 주변장치들이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장치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전체 시스템의 전력소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소모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전지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스마트 배터리 이외에 각 장치 단위로 소모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를 추가하는 접근방법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괄식? 요점이 뭐지? “스마트 배터리 연구를 보완하는 연구가 점점 더 필요해 진다.”

바른 예

“20-21세기 인류의 방향을 바꾼 컴퓨터는 단 한명의 천재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현재의 컴퓨터는 인간의 삶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았다. 누구도 수학적 꿈의 좌절을 독자적으로 증명하기 위해던 논문이 가져올 과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 컴퓨터의 기원은 단순히 튜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도, 튜링에서 멈추는 이야기도 아니다. 컴퓨터의 기원능 오랜 시간에 걸쳐 일궈낸 지식과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노력의 과정에 있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를 하며 지식을 축적해 온 모든 학자들, 그들 모두의 이야기이다.”

(2015년 수강생 에세이)

모든 레벨에서 두괄식으로

각각의 문장도 두괄식으로

- ▶ 중요한 것이 주어가 되어야
- ▶ 문장의 시작이 문장의 내용을 예측하기 쉽도록
 - ▶ “위의 이야기는 ...(길게)...이기때문에 우리가 쉽게 수공하기는 어렵다.” 보다는
 - ▶ “하지만 위의 이야기를 쉽게 수공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이기 때문이다.”

인용하기/원저자밝히기

모든 문서에서 내가 이룬 성과에 도움이 된 것은 정확히 언급(citation)한다.

- ▶ 다른 저자의 문장은 정확히 그 출처와 원저자를 밝힌다.
- ▶ 남의 “작품”을 사용했다면, 그 원저자의 이름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말아야. 감사하는 겸손.
- ▶ 본인의 “작품”에는 정확히 본인의 이름을 남긴다. 자부하는 기쁨, 책임있는 자세.

이메일

이메일 에티켓을 성숙하게.

- ▶ 이메일은 묘하다.
- ▶ 얼굴을 마주보도 말하는 것 만큼 상호교환이 즉각적이지도 않고
- ▶ 옛날 친필 편지같이 시간을 두고 정성스럽게 주고받는 형식도 아니다
- ▶ 전 세계 누구와의 이메일에서도 다음중 1, 3, 4는 빼먹지 말아야:
 1. 누구에게(...님, Hi, Dear)
 2. 마무리(그럼, Best, Sincerely)
 3. 누가(-K, ... 배, ...드림)
 4. 완전한 문장